

보도 일시	2022. 11. 7.(월) 14:00	배포 일시	2022. 11. 7.(월) 14:00
담당 부서 <총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소현수 (044-200-5725)

2022년 11월 2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892 - 부산항 13개 노선으로 산정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첫 발표 11.7월 14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부산항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해 11월 7일(월) 14시 발표했다. 11월 2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는 2,892를 기록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14시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가 발표될 예정이다.

* KOB Container Composite Index

** <http://www.kobc.or.kr/>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임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이다. 하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상해발 운임지수로서 한-일, 한-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의 운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발 운임지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하는 신규 운임지수인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지수는 아시아,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총 13개로 구성된 노선의 종합지수로 산정된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등록된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과 전문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운임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되고 있다.

* 람세스물류, 삼성SDS, CJ대한통운, LX판토스, 유니코로지스틱스, 유로라인글로벌, 은산해운항공, 태웅로직스, 팩트라인터내셔널, 현대글로벌비스 (가나다순)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등 해외 운임지수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항로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국적선사들과 수출입 기업들이 운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는 우리 국적선사들과 수출입기업의 운송 계약 체결에도 활용될 수 있고, 향후 운임 정보가 축적될 경우 선대 운용 계획 수립 등 국적선사의 장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금)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시황 분석 고도화를 위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개발을 비롯해 국적선사 경영안전판 마련,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리 국적선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해운시장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다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시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우리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이 실제 해상운임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소현수 (044-200-5725)
담당 부서 <공동>	한국해양진흥공사 스마트해운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이석주 (051-795-1641)
		담당자	과 장 정경남 (051-795-1644)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임시장을 반영하는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 필요성 증대*

* SCFI(상하이발 컨테이너운임지수)와 우리나라 주요 항만 운임간 격차가 확대되어, 운임시장 척도로서의 SCFI 활용성이 낮아짐

□ 주요 내용

- 부산항發 ‘컨’ 운임지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선사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조기경보 등에 활용
- 기존 SCFI와는 달리 한일·한중항로 등 주요 연근해 항로 운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적선사 영향 분석 고도화 가능
- 운임공표제(Port-MIS) 및 패널리스트*(대형 물류사 등 10개사) 제공 운임을 합산한 후 항로별 운임을 가중평균하여 지수 산출

* 현대글로벌비스, CJ대한통운, 삼성SDS, LX판토스, 태웅로직스 등

< 한국형 운임지수 산정 방식 및 항로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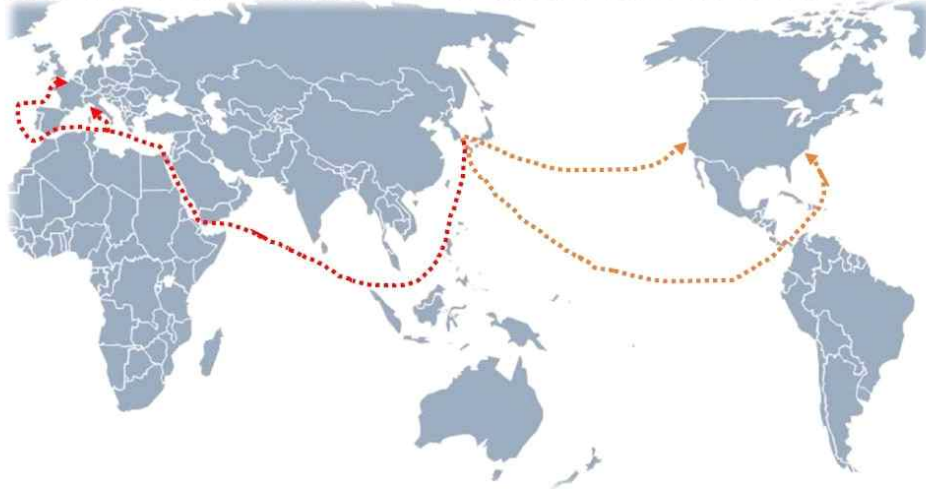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산정 방식	▶ 선사 등록운임 25%, 10개 물류회사 패널리스트 제공 운임 75%
항로별 비중	▶ 연근해(3개) : 중국(15%), 일본(10%), 동남아(10%) ▶ 중장거리(6개) : 중동·오세아니아, 중남미 동·서안(각각 5%) 남·서아프리카(각각 2.5%) ▶ 원양(4개) : 북미서안(15%), 북미동안(10%), 북유럽(10%), 지중해(5%)

□ SCFI와의 차이점

구분	한국형 운임지수(KCCI)	상하이 운임지수(SCFI)
기준	부산발, FEU	상해발, 미주 FEU, 그 외 TEU
주관	한국해양진흥공사	상해항운교역소
기반자료	공표 운임, 패널사	패널사
발표 방식	매주 월요일 14시, 무료	매주 금요일 16시,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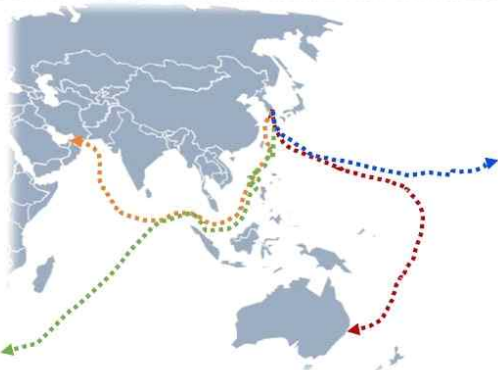
원양항로 (북미 · 유럽)

- ✓ 북미서안 부산 → LA, 롱비치, 오클랜드
- ✓ 북미동안 부산 → 뉴욕, 사바나, 찰스턴, 노퍽
- ✓ 유럽 부산 → 함부르크, 로테르담, 안트워프, 펠릭스토
- ✓ 지중해 부산 →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제노아, 나폴리



중 · 장거리

- ✓ 중동 부산 → 제벨알리, 담만, 제다
- ✓ 오세아니아 부산 → 시드니, 멜버른
- ✓ 중남미동안 부산 → 산토스
- ✓ 중남미서안 부산 → 만사니요(멕시코)
- ✓ 남아프리카 부산 → 더반
- ✓ 서아프리카 부산 → 테마



연근해

- ✓ 중국 부산 → 상하이, 칭다오, 톈진
- ✓ 일본 부산 → 도쿄, 오사카
- ✓ 동남아 부산 →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